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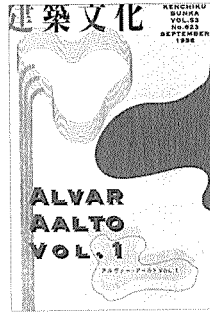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domus

건축문화

98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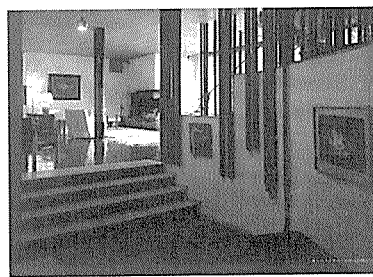
알바 알토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호는 마이레아 저택과 파이미오의 세나토리움, 알토의 여름 주택 등 6개의 알바 알토의 작품들에 대한 사진 소개와 그의 주요 작품 50개에 대한 개략적 소개, 그리고 두 차례의 대담내용과 에세이가 실렸다.



■ 알바 알토 특집

알바 알토의 건축은 “그것들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서 직접 보아라”라는 말처럼 그 작품들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 회피되어 왔다. 알토의 비평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유기적” 내지는 “축각적인” 혹은 “인간적이고 편안한” 같은 단어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는 있으나 그의 건축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호와 다음의 10월호에서는 알토의 건축적 공간에 대한 탐구를 다른 모더니스트들의 영향과 건축사에서 알토가 지니는 위치에 대한 토론과 함께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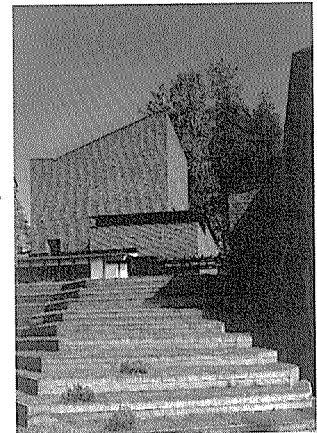
▶대담1: 알토로부터 읽어내는 모더니즘의 건축, 도시(아쯔카 하지메와 오가베 노리아끼의 대담)



이 대담의 주제는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

서 알토가 갖는 위치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모더니즘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알토는 분명 주변에 속하는 인물로 생각되나 그는 결코 이단적 인물이 아니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이기만 했던 중심의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지역의 산업과 연계를 시킨 알토의 건축이 오히려 모더니스트의 이념을 실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낸다. 이는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의 우익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알토가 좌익인 생산주의자들보다 생산의 문제를 더 실천에 옮겼다는 이야기도 된다. 대담의 내용은 국가의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건축과 도시, 테크놀로지에 대한 근대적인 관심, 사야리넨과 알토, 빛의 문제, 알토의 다양한 실험 등의 주제로 전개되었다.

▶대담2: 현재의 설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알토의 가능성(쓰카모토 요시하루와 요네다 아키라의 대담)



이 대담은 알토가 건축공간을 만들어 가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것이 현재에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주제였다. 쓰카모토는 알토의 공간 형성은 ‘미분적분’ 같은 것으로 네덜란드의 더 스틸이나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요소 환원주의와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작은 요소로부터 전체로 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모더니스트들의 요소들은 전체로 형성되었을 때 하나하나 구별이 가능한 반면 알토가 전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마치 적분을 하는 것과 같이 통합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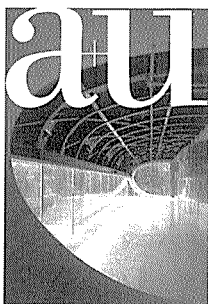
이 '적분'의 과정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방식이 존재하고 이 방식은 지역의 형제와 연관을 맺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원형극장과 같은 형태가 건물의 볼륨이 되었든 옥외 공간의 형태가 되었든 전체 형태를 구성해 가는데 있어서 고집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알토 공간이 갖는 신체성과 외부조건과의 생기있는 대응관계가 흥미있는 것으로 지적된 반면 문제를 명확히 조직화하는 모더니즘과 달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직화 이전에 지역주의를 통해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지적이 제시되었다.

▶ 이 외에 알토 건축의 성장 배경과 과정을 조명한 야스카 하니메의 에세이 연재물 제1회 '알바 알토 - 행복한 건축가'와 마이레아 주택, 파미미오의 세나토리움, 세이나차로의 사무소, 알토의 여름주택, 아뜰리에 알토, 쿠르투리탈로 등 현존하는 여섯 작품이 사진들과 주요 작품 50선 중 제1부가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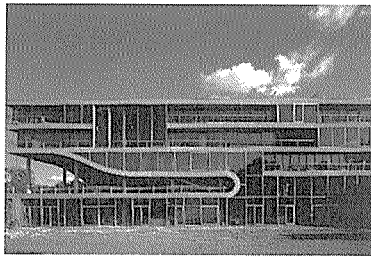
a+u

98년 9월호

로테르담 건축가의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호는 피터 부케년의 소개와 함께 렘 콜하스의 Utrecht 대학의 Educa-
torium, MVRDV의 Villa VPRO와 RVU 사무소, 키이스 크리스천의 Pijler 초등학교, 뉴틀링스와 뉴데익의 우체국 등의 로테르담 건축가들의 최근작들이 소개되었다.



■ 특집: 로테르담의 건축가들



이번 호는 깊은 흥미를 끄는 다수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네덜란드 건축의 특집으로, 앞으로 발간될 12월호와 함께 두 번에 걸쳐 꾸며지게 된다.

이번 호의 테마는 '로테르담 건축가들'이다. 로테르담은 알다시피 렘 콜하스가 이끄는 OMA의 고향이다. 지금은 이미 국제적인 건축가로 활약하고 있는 콜하스지만 그를 이해하는 데에는 네덜란드 특유의 건축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즈부르그나 몬드리안, 리트펠트, 아우트, 듀덕 등을 배출한 네덜란드는 기능주의, 모더니즘의 중심지였다. 그 이후 네덜란드 건축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기능주의, 합리주의를 우선하는 건축을 고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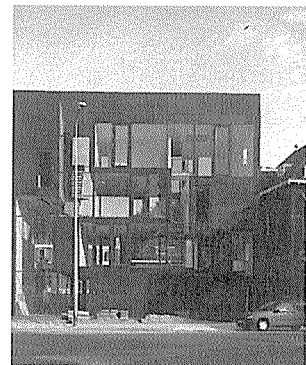
피터 부케년이 논문 속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네덜란드 건축에 강력한 일격을 가할 것을 생각한 것이 렘 콜하스였다. 그리하여 그의 아이러니컬한 유포피아는 눈감잡할 사이에 전세계에 파고들어 많은 건축가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게다가 콜하스의 존재는 모더니즘을 신앙으로 생각해온 네덜란드에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ex-OMA라 불리는 건축가그룹이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들은 콜하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자적인 건축을 전개하여 역으로 OMA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게 할 정도의 충격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로테르담은 OMA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 ex-OMA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Movement를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 피터 부케년의 Introduction "Netherlands Now"에서는 근대 이후 네

덜란드 건축의 특징과 콜하스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덜란드 작가들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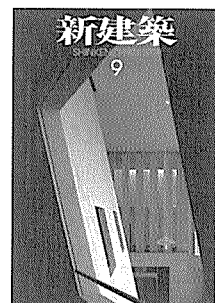
소개된 작품들로는 렘 콜하스의 유포피아(Utrecht)대학의 Edutorium, MVRDV의 Villa VPRO, RVU Office, 그리고 De Architectengroep과 협동 작업한 Double House, 키이스 크리스천의 Pijler Primary School, Housing at Spreeuwen Street and Koekoek Street, Hooikade Housing, 뉴틀링스와 뉴데익의 Minnaert 빌딩, 우체국, Veeman Printers를 위한 새 건물, West 8의 스파부르크 광장 등이다.



신건축

98년 9월호

이번 호의 작품소개에서는 흥미하고 마끼의 나토리市 문화회관, 도요이토의 오타區 휴양촌 주요부, 와세다 대학 오사무 이시아마 연구실의 와세다 사지끼湯, 히데토 호리이키와 URTOPIA의 ZONA(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따미 준의 墨의庵, 노오스 환경설계



사무소의 아타미이즈 산장 등 19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전후 모더니즘건축의 궤적 - 단계건조와 그 시대'가 게재되었다.

■ 작품 소개

▶ 후미히꼬 마키의 나토리시 문화회관



이 건물은 인구 6만의 나토리시에 건립되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회관이다. 나토리시는 아직 농촌의 풍경이 남아있는 곳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로서 이 문화회관은 인접하는 시청사와 체육관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 중심부로서 계획되었다. 녹지 속의 파빌리온으로 구상된 이 건물은 마키 특유의 깔끔한 면과 매스의 처리와 함께 넉넉한 높이의 실내공간이 특징이다. 대·중·소의 공연장을 각기 독립된 포이어를 가지면서 중정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

▶ 도요이토의 오따區 휴양촌 주요부

이 건물은 북동쪽으로 등을 등지고 전면으로는 강을 건너 서쪽으로 펼쳐지는 평야지대로 시야가 뻗어나가는 위치에 있다. 반달 모양의 굽은 형태를 한 평면은 함께 마련된 태양의 광장을 에워싸듯이 자리잡았으며 강건너의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감싸안는 듯하다. 긴 평면은 지형에 따라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길이방향을 따라 연결되는 각각의 공간들은 단차를 이루며 분절되고 이들을 경사로로 된 복도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과 목재 루버의 입면은 농촌지역에 세워진 이 거대한 건물의 거부감을 해소시키고 있다.

▶ 와세다 대학 오사무 이시야마 연구실의 와세다 사지끼湯
욕장인 이 건물은 황색의 벽들이 실내를 꾸미고 있다. 파편화된 공간과 이에 대조

되는 장식 없는 황색의 벽들은 사이사이 들어오는 빛에 의해 조화를 이루며 연출되고 있다. 갈라진 틈처럼 보이는 건물의 종방향으로 난 복도는 '단일한 볼륨을 두 개로 나누어 그 결과로 출현하는 공간의 흔적이 이 건물 외장의 포인트'라 지적한 작가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이따미 준의 墨의 庵

흙, 나무, 돌 등의 자연 재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이따미 준 건축의 특징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는 대나무라는 자연 재료와 철이라는 반자연 재료에 주목하였다. 건물의 외피를 곧은 대나무로 목재 루버와 같이 마무리하였으며 전면에 심어져 있던 두 그루의 벚꽃 나무가 이러한 외관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실내는 흑색의 철판을 사용하여 바닥과 벽을 마감하였다. 실내에 장식된 동양화와 도예품들과 함께 흑색의 철은 동양적인 재료로 탈바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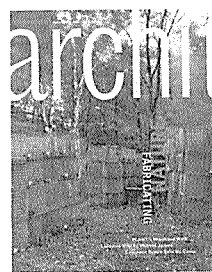
■ 연재: 전후 모더니즘 건축의 궤적 - 단계건조와 그 시대

清家 清(1918년생)은 단계건조(1913년생)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을 배운 인물이다. 모더니즘이 이미 일본에 들어온 시기인 1938년에서 1943년까지 동경미술학교와 동경공업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한 그에게 비취친 당시의 모더니즘의 모습을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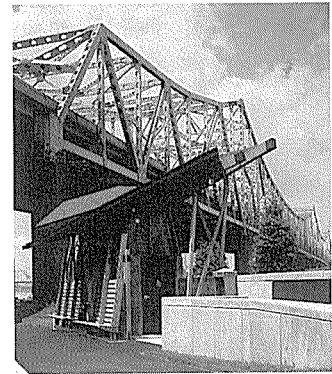
98년 7월

7월호는 Fabricating Nature라는 주제로 자연에 대응하여 세심하게 고려된 작품들



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조경과 건축의 경계에 있는 작품들도 있으며 자연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택, 별장 등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미국 건축가들의 다변화, 다각화되고 있는 부동산업계로의 참여 경향 등을 다루고 있다.

■ 자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축에 대하여



▶ Sweet Farm은 켄벡의 Easter Township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숲을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토론토의 디자인 회사인 PLANT가 디자인한 것으로 도시의 인공물을 다루듯이 숲을 다뤘지만 그것의 구성물은 자연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숲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의도된 시퀀스를 갖는 장소를 갖는다. 1. Maesh Porch - 늪지대에 걸쳐진 포치로 다리를 따라 걷다가 플랫폼에 이르면 늪주위의 작은 묘목들과 그 잎이 만들어내는 캐노피가 새소리와 함께 장소성을 만들어낸다. 2. Mink Cage Garden - 철망으로 만들어진 작은 밍크 우리(Cage)들을 쌓아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었다. 원래의 기능은 순환되고 내용은 전환된다. 우리로 쌓은 벽은 펼쳐진 경치의 시퀀스를 만들어내어 좁은 진입로사이로 골짜기의 드라마틱한 전망이 펼쳐진다. 3. Woven Walls - 5ft 간격의 나무 말뚝에 가로방향으로 긴 나무막대들이 엮여 있다. 이것은 스크린을 형성하여 숲으로의 전망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기도 하여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Louisville, Kentucky에 위치한

Waterfront Park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며, 안내소, 벤치, 공공화장실 등의 기능을 갖는 Bravura가 설계한 Functional Follie ▶웨스트 버지니아에 위치한 U.S. Fish & Wildlife Service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심하게 고려된 연구시설, 주택단지로 언덕주위에 적절한 스케일의 건물군들을 얻도록 다양한 건물 크기의 풍선들을 매어놓아 비교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텍사스에 있는 Laurence Speck의 Rough Creek Lodge ▶캘리포니아, 산호세지역의 재개발에 일대 전환을 맞게한 Jones, Partners의 공격적인 모습의 관광안내소 ▶Shim-Sutcliffe, Architects의 토론토 공원 ▶Vincent James의 미네아폴리스 데이톤주택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미국 건축가들의 부동산 참여 경향

새로운 교육의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활기로 건축가들과 건축교수들이 다변화, 다각화되는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MIT나 Columbia대학은 80년대부터 부동산관련 학과를 개설해 왔으며 그밖의 건축 대학도 MBA과정과 M,Arch의 협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과정을 받은 많은 전문인들은 부동산 개발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디즈니 월드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유명한 건축가들을 지휘하거나, 뉴욕 할렘지역의 재개발계획에서 역사보존지구와 비보존지구의 민감한 문제와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개인적인 건축설계의 과정을 넘어서서 건축물들의 통제와 건물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심을 갖는다. 나아가 현실적인 사고 안에서 경제논리에 충실한 건축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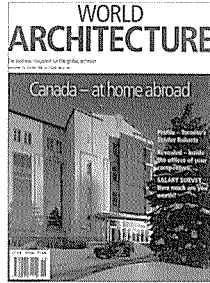
■기타

▶석고보드의 기술적 정보 ▶건축적 스케치를 정확한 수치의 도형이나 2차원의 도면으로 전환시켜주는 소프트웨어의 소개가 다루어져 있다.

World Architecture

98년 10월

이번호는 전 세계 건축가의 설계사무소 소개와 함께 연속기획으로 캐나다 건축계에 초점을 맞춰서 캐나다 현대 건축의 지형도를 그려보았으며 각 대륙별로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수준이 실려 있다.



■건축가 자신의 사무소

건축가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장시간의 작업과 밤샘작업이 많은 직업이다.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작업공간을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를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설계사무소의 소개를 통해 다루었다.

유럽에서 정형적인 오피스 건물에 설계사무소를 갖는 예는 드물다. Zaha Hadid는 낡은 학교 건물에, Ricardo Bofill은 버려진 시멘트 공장에 자신의 사무실로 개조하여 쓰고 있으며 Renzo Piano는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투명한 테라스 하우스에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자신이 직접 설계하지 않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Michael Graves는 뉴저지의 역사적인 농가를 리노베이션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으며 보다 큰 규모의 Richard Meier의 뉴욕 본사는 개조된 1920년대의 벽돌 오피스 건물의 12개층을 임대하여 쓰고 있다. 캐나다의 젊은 건축가들은 그들의 프로젝트 만큼이나 독특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버려진 제재소의 장치물들을 인테리어에 이용한 다던지, 콘크리트 블록 하우스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다. 아시아의 설계사무소들은 자신의 사무실

이 그 회사의 디자인 철학을 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며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예로 Gensler의 홍콩지부와 OMA Asia가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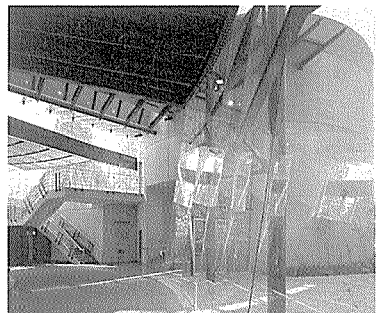
■캐나다 건축



Country Focus에서는 캐나다가 다뤄졌는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건축인과 캐나다에서 일을 원하는 외국인이 처한 건축적인 환경에 대해 실려 있으며 캐나다의 가장 큰 설계사무소 중 하나인 Zeidler Roberts Partners의 소개와 캐나다 건축가들의 세계적인 프로젝트작업에 관한 심포지엄 내용, 그리고 다음과 같은 캐나다의 최근 건물이 소개되었다.

▶Bing Thom의 밴쿠버 Chan Centre 콘서트 홀 ▶Saucier + Perrotte/Menkes Shoener Degenais의 몬트리올 건축학교 ▶Patkau Architects Inc의 빅토리아 Strawberry Vale School ▶Dan Hanganu Architects의 몬트리올 Cirque de Soleil 본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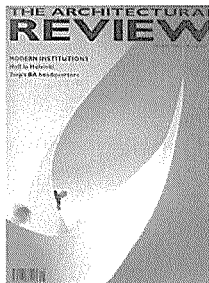
▶각 대륙 건축계의 샐러리 조사결과로 지난해 미국 건축계의 호황에 이어 올해는 호주 건축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가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여름 개항한 홍콩의 첵람콕 공항에 대한

문제점 비판 ▶David Lloyds Jonse의 저서 「Architectre and Enviroment」와 최근의 대형 아트 뮤지움에 대해 다룬 책, 「Towards New Museum」의 북리뷰 ▶기능적이고 팀 작업의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용 가구의 소개가 실려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98년 8월

8월호는 Institutional Building에 관해 다루고 있다. Niels Torp의 히드로 공항 근처의 브리티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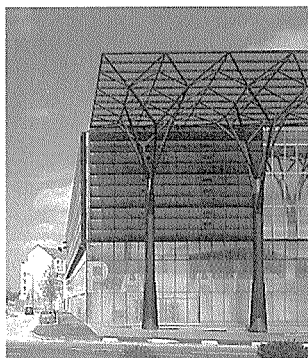
항공사 복합건물, Steven Holl의 헬싱키 New Museum, Alvaro Siza의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인 Marco de Cavanes의 교회, Studio Granda의 아이슬란드 대법원 청사등을 소개하면서 시설에 대한 건축가들의 새로운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현대의 시설에 대해

현대의 시설은 변화하고 있다. 현대 시설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는 존엄성과 즐거움이다. 역사에 걸쳐서 건축은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이상화시키고 요약화 하였다. 그러나 현대는 시설의 정의가 어려워지고 단지 주거나 종교적인 용도 등으로 분류된다. 아니면 법원, 교회, 병원, 박물관 등의 전형으로 분류된다. 20세기의 시설 디자이너들은 이전의 모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대의 사회구조는 절대적 권위를 요구하는 단체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산업사회는 절대적 가치나 그 가치를 분명케 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갖지 않는다. 서구에서 신의 지위는 부에 의해 그 자리를 빼앗겼으며 베드로 성당의 존엄성은 홍콩이나 상하이 뱅크로 넘어 갔다. 20세기 중반이래로 공공시설의 분해와 영원함, 절대적 부에 대한 혐오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과 도전들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건축이론으로의 유행에 의해 새로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적, 미적 관심이 일어났다. 역사적 선례, 도시적 맥락 그리고 공공의 참여에 대한 고려는 시설적인 건물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제도의 분해는 새롭고 다양한 타입의 시설이 생겨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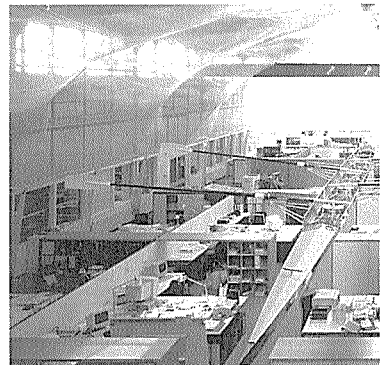
▶Steven Holl의 헬싱키 New Museum은 과거의 엘리트적인 박물관의 이미지에서 대중과의 교류를 위한 역동적이고 민중적인 이미지로의 전환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설로서의 박물관을 제시하고 있다. ▶Niels Torp의 히드로 공항 근처의 브리티쉬 항공사 복합건물은 삭막한 오피스 건물의 문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중심화되는 대신에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인간적인 스케일로 조직되었다. 법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에 의해 얻어진 현대 법원의 해석은 ▶Studio Granda의 아이슬란드 대법원 청사와 ▶Jourda & Perraudin의 Melun에 위치한 지역법원에서 보여진다. 건축은 제도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해나가는 동인이다. 위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건축의 영역은 개방성, 접근성, 존엄성 그리고 즐거움의 배양을 통해 현대 시설 형성의 유희를 포함한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Alvaro Siza의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인

Marco de Cavanes의 교회 ▶Victor Lopez Costelo의 스페인 Brunete 문화 센터 ▶Heikkinen-Komonen Architects의 헬싱키 맥도널드 본사 ▶Saucier + Perrotte의 몬트리올 필름센터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생태 막 Eco Membrane



1930년대 지어진 공업적 용도의 창고 건물인 Deckelhalle은 Eco Membrane에 의해 Siemens 스튜디오를 위한 사무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단열재가 없으며, 평면의 너비가 너무 깊어서 자연광이 건물의 중앙까지 들어오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외관은 변형없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창을 내고 꼭대기 부분과 처마마래에 환기를 위한 루버를 두었으며 건물의 외피와 내부의 새로운 막 사이의 공기층이 단열층을 형성하기 위해 투명한 막을 건물의 내부에 걸었다. 환경설비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이 것의 설계자인 Herzog는 투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원리를 재해석하였다. 이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동안 Siemens의 디자이너들은 과거와 현대의 건축기술에 대해 시각적으로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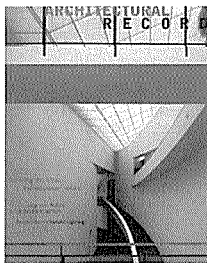
▶성페테스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다음 세기초에 개관할 응용미술과 장식미술 그리고 멀티미디어 박물관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Urban Landscape로써의 Megaform이라는 주제로 케네스 프렘튼의 사회로 열린 네 번째 에루살렘 건축

세미나,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으로 ▶Olson Sundberg의 시애틀 박물관 재계획 ▶Claesson Koivisto Rune Architektkontor의 스톡홀름 레스토랑 등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98년 8월호

예술과 레저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연속기획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리스본의 아쿠아



리움과 일리노이주의 미술관, 뉴저지주의 공원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T. R. Hamzah & Yeang의 말레이시아 Guthrie Pavilion과 Steven Holl의 헬싱키 Kiasma Museum이 근작으로 자세히 다뤄졌으며, Steven Ehrlich의 Neutra가 30년대 설계했던 Lewin House 증축에 대한 비평과 미국의 대규모 설계사무소의 강점과 각 사무실의 소개가 실려 있다.

■ 건물유형 연구 - 예술과 레저

혁신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을 그들 주변환경을 탐험하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건물은 사람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며 우리를 초대한다. 상호작용은 요란한 분위기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소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의 작품들 - 아쿠아리움, 공원, 미술관은 완전히 재충전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다음의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사람과 장소사이의 본능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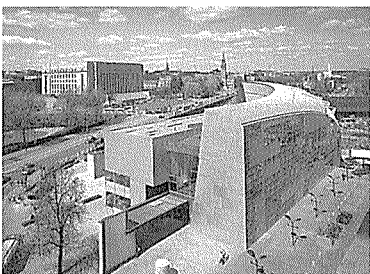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들은 정적인 구조가 아니며 건물과 인간사이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구체적 사례들은 ▶Cambridge Seven Associates의 리스본 Oceans Pavilion ▶Parsons + Fernandez-Castelleiro의 뉴저지 Boyd 공원 ▶Frederick Fisher + Partners의 뉴욕 롱아일랜드시의 현대미술관 ▶De Stefano + Partners의 일리노이주 Elmhurst 미술관

■ 근작소개



▶T. R. Hamzah & Yeang의 말레이시아 Guthrie Pavilion
고도의 인장기술과 비정형의 기하학이 결합된 Ken Yeang의 Guthrie Pavilion은 패브릭 캐노피로 특징지어진다. 유리 섬유로 된 넓은 처마는 주간에는 햇빛을 분산시켜주고 야간에는 조명을 흡수하여 반사시킨다. 내진에 대한 고려는 없었지만 태풍과 바람에 대한 저항이 구조적으로 계산이 되어 설계되었다.

▶Steven Holl의 헬싱키 Kiasma Museum



그의 초기 스케치에서 보이는 "Intertwining - 꼬임"을 도상화한 것으로 그것은 미술관과 시의 모뉴멘탈한 건물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의회당을 하나로 감겨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건물 중심부의

아트리움은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수평띠를 가지고 있는데 400ft길이의 이중 곡면을 얻기 위하여 5개의 판의 콘크리트가 층을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되었다. 램프는 주된 순환 동선이 되며 25개의 전시실은 각 전시 작품에 따른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갖고 있다. Holl에 의하면 건물은 분리된 대상물이라기 보다는 연속된 뷰와 공간경험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건물은 부분적인 도시적 조망에 관한 것이며, 이것의 흥미로운 점은 그 단편속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다.

■ 비평 - Steven Ehrlich의 주택

30년대 Neutra가 설계한 Lewin House는 Steven Ehrlich에 의해 원래크기의 거의 두배정도로 증축이 되었는데 이 건물의 주된 결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잘 의도된 뉴트라적 제스처이다. 그것은 뉴트라가 "Spiderleg Outrigging"라고 부른 것인데, 그는 40~50년대, 조형적인 지붕선의 무한한 확장과 동시에 그것을 땅으로 다시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그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Lewin House가 지어지던 1930년대에는 그러한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Ehrlich의 새로운 Spiderleg는 사이클로이드 볼트 천장의 소도구가 되어 그것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Lewin House의 새로운 설계자가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그 자신 스타일대로 변경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 특집 - 미국의 대규모 설계사무소

▶대규모의 설계회사를 운영할때는 창조적인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대규모 설계회사의 강점은 전문적인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대처에 용이하다는 것과 대규모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와 좀더 빠른 시간내에 완성되기를 바라는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규모 설계사무소인 NBBJ, Gensler, Leo A Daly, RTKL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최근 소식

▶암스테르담 역사지구에 지어진 Ben

Van Berkle의 쇼핑몰에 대한 소식으로 비정형의 이 대지는 300년 이상된 작은 규모의 네델란드의 벽돌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는 과감하게 분절된 매스를 사용하였다. ▶ National Building Museum in Washington D.C.에서 열린 새로운 박물관에 대한 심포지움 소식 ▶기하학적인 삼각 빨로 이루어진 지붕이 교토 교외의 숲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I. M. Pei가 설계한 교토 미호 미술관 ▶지역 고전주의 디자인에 호응하는 A. M. Stern의 내쉬빌 도서관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던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라호마 베이 브릿지의 새로운 디자인 ▶2005일본 엑스포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968ft, 150층 높이의 타워소식 등을 다루고 있다.

■ 기타

▶필름 코팅, 라미네이팅된 유리의 기술적 정보 ▶ 교회, 트레이드쇼, 레스토랑, 초등학교 등에 쓰인 조명이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면서 건물에 어떻게 생동감을 부여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 에너지 절감효과와 시각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조명 연구

domus

98년 8월

Mario Botta의 텔 아비브 유대인 Heritage Center와 Rafael Moneo의 스토클름 현대 예술, 건축 박물관 그리고 Gigon & Guyer 다보스 스포츠 센터, Henri Godin의 아미앵스 Saint Leu 대학, HOK Sport의 스포츠 시



설, Damien Hirst의 Pharmacy 레스토랑 등이 근작으로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Wiener Werkstatte를 조명하는 전시회 소식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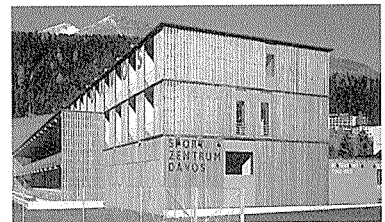
■ 근작 소개



▶Mario Botta의 텔 아비브 유대인 Heritage Center의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종파, 즉 이스라엘 정유태교와 자유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교회당이 두 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되었다. 하나는 기도를 위한 공간, 다른 하나는 토론을 위한 장소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특유의 기하학의 사용으로 두 개의 공간은 동등하게 각각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Rafael Moneo의 스토클름 현대 예술, 건축 박물관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크기와 비례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각 블록들을 연결하는 Compactness의 논리는 전체를 지배한다. ▶Gigon & Guyer 다보스 스포츠 센터는 세가지의 주제 아래에서 디자인 되었으며, 그것은 1. 앞마당의 풋볼 경기장을 겨울에 스케이트 링크로 변경 가능하도록 댐의 기능을 할 길다란 평행육면체의 형태, 2. 돌출, 후퇴 그리고 천공된 공장건물과 같은 입면, 3.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래픽적인 색상과 재료, 디테일의 명확성이다. ▶Damien Hirst의 Pharmacy 레스토랑은 팝아트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반영한 작품으로, Hirst는 작업환경에 설치 예술을 만들어내면서, 건축안에 예술이 녹아 있도록 내부공간과 외부를 디자인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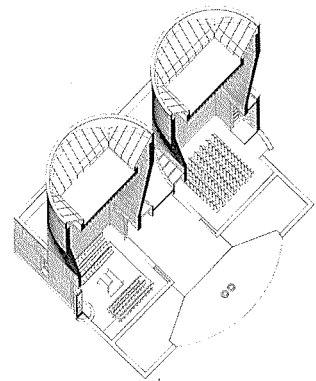
다. ▶구성의 방법으로서 예술 - 회화를 겹치려는 Atelier Mendini의 관심이 드러난 스위스 아로사 카지노의 입면 재계획 작품으로 여기서 디자인, 건축, 회화는 독립적인 조각의 흥미로운 콜라주로 섞이게 된다. 그밖에 ▶Henri Godin의 아미앵스 Saint-Leu 대학 ▶HOK Sport의 스포츠 시설 등이 자세하게 다루지고 있다.

■ Wiener Werkstatte의 전시회



1903~1932에 활동한 디자인 운동단체인 Wiener Werkstatte의 전시회 소개, Joseph Hoffman, Koloman Moser 이후 이 단체를 주도한 Peche의 예술이 응용된 가구, 금속작품, 보석, 세라믹, 직물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그는 예술과 인공물을 혼동하며, 제품의 실제적인 면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입장에서부터 비판을 받아 왔지만 기능을 넘어서 사물의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면을 부각시킨 그의 디자인은 Joseph Hoffman, Koloman Moser 이후로 Wiener Werkstatte의 작품들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 기타



Renzo Piano의 98년 프리츠커상 수상 소식 ▶in-off공식에 의해 전개된 98밀라노 가구 전시회 소개 ▶지도와 함께 네델란드 건축가 Van Eyck의 작품 답사 소개.